



# 진주교 군종교구

(우10948)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210-28

주임신부	김진오 (요셉)
시목회장	백형규 (유스토)
전화번호	031-947-0174(사무실) 010-2969-0558(주임신부)
본당키예	http://cafe.daum.net/junjincal

## ※ 성시시집안내 ※

평일	월	06:00	전진성당	주일	토요일	17:00	전진성당
	화/목/토	10:00			주일	10:30	
	수/금	19:00			주일	14:30	
고해성사			성시시간		예비지교리		
매 미사 15분 전			매월 첫주일 11시 30분		매주일 오전 09시 30분		

### 2026년 기해 전진성당 시목계획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혼인성사의 해

- ① 부부와 자녀/장병을 위한 기도 바치기
- ② 성가정을 위한 전례참여 활성화
- ③ 세례성사의 완성을 위한 교리교육 지속화
- ④ 예언자직에 참여를 위한 간부단체 활성화
- ⑤ 사제,왕직에 참여를 위한 병사단체 활성화

### 2026년 교무금 안내(월납제)

일병	3,000	상병	4,000	병장	5,000
하사	10,000	중사	25,000	상사	50,000
원사	70,000	준위	70,000	소위	20,000
중위	25,000	대위	55,000	소령	75,000
중령	100,000	대령	170,000	준장	200,000

농협 171337 - 51 - 001276 (진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전진성당)

### 2026년 시목회비 안내(월납제)

하사, 중사 위관장교	10,000	소령, 준위 상사, 원사	15,000
중령	20,000	대령, 준장	30,000

농협 302-1934-6696-11 (송중완)

### 2026년 상모회비 안내(월납제)

전 회원 20,000원

농협 302-1934-6783-11 (신지섭)

### 임명직 군종병 모집(상시)

시설봉사	환경 미화	반주봉사	건반, 기타
전례봉사	해설, 복사	JSA성당	주일 오후

문의 - 사무장, 직시님

### 공지사항

- 한만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 바치기  
일시 - 매일 저녁 9시  
장소 - 각자 삶의 자리
- 평일미사 안내  
일시 - 6.24(수) 09:30, 26(금) 10:30 전진성당
- 예비신자 모집 안내  
대상 -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장병  
기간 - 예비신자 신청 이후 4주 과정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6항)입니다.
- 제단체 회의 (사목회)  
일시 - 28(주일) 교중미사후 전진성당

오늘의 상기	전례봉사이사 안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날짜	전례시기	해설	특시	주일 헌금	기타
입당 324	6.21(주일)	연중 제12주일	이종현	최은지, 군종병	270,000	
봉헌 134	6.28(주일)	연중 제13주일	임시우	송중완, 군종병	345,000	
상제 116	7.5(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일	김상혁	최운정, 군종병	630,000	
포교 304	7.12(주일)	연중 제 15주일	백세훈	정호경, 군종병	0	

★교무금 납부(백형규 유스토, 박채연 마리아, 정호경 마르코), 감사헌금 봉헌(주임신부, 송중완 아우구스티노)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21일(제1305호) 연중 제12주일

별명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군종주보

## 말씀

##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새로운 길 앞에서 쉽게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 처음 맡는 일을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할까 걱정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부족하게만 바라보곤 합니다. 실수했던 기억, 비교당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저 역시 군종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깥 본당과는 전혀 다른 환경,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상처받은 장병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 없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는 것인 지 모릅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 생활 안에서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지친 전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살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 그 자체를 없애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느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마음속 깊은 불안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오늘 복음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강준(시도요한) 신부 동해(해군 제1함대사령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20,10-13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제 2 독 시 로마 5,12-15
- 복음 판'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 음 마태 10,26-33
- 영 성 제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이처럼 전방지역에서의 군중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고도 임지에 부임하지 않거나, 후방에서 휴가를 보내고는 고의로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아 탈영 사고로 기록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도 초창기의 군중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 것은 군의 군중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지휘관들조차도 군중신부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신부가 임지에 부임해 가면 위병소에 장시간 세워 놓고 상관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통과시켰다. 천주교 신부를 처음 만난다는 병사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어쩌다 신자 장교를 만나면 그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보수 촉탁 시대나 문관 시대의 군중들은 미국의 군중처럼 모자에 하얀 색의 십자가 뺏지를 붙여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냈다. 처음 접하는 군인들은 신부나 목사들을 때로는 군마사육자(軍馬飼育者)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도 달라져갔다. 신부들은 초창기부터 목사들과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군복에 로만 칼라를 착용하였는데 신부들이 로만 칼라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생병(衛生兵) 혹은 비행대원(飛行隊員)이나 목사라고 알고 신자 장병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활동하던 신부들은 수시로 이동하는 소속 부대를 따라 행군하며 길가에서 성사를 주고, 바위나 나무 밑, 그리고 자동차 등에 임시 제대를 마련한 후 야전 미사를 봉헌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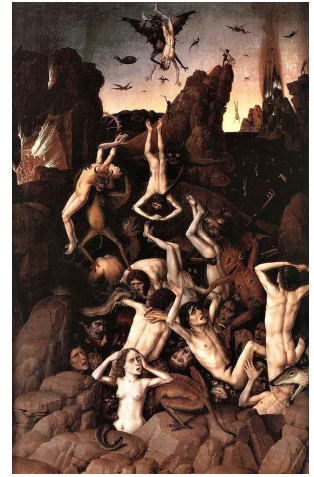
우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도관리, 영암리를 거쳐 황성의 안흥까지 후퇴하였다. 부임 초 급변하는 전세에 따라 부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최 목사와 나는 군대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였기에 남다른 고역과 설움을 겪었다. 우리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 재빨리 움직여야 했고, 부대 이동을 알아 차려 어느 차에나 보따리를 싣고 올라타야 했다. 우리를 위해 특별히 차가 배당될 리도 없었거니와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 줄 병사도 없었다. <다음 주에 계속>

###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div data-bbox="67 1098 353 1161" data-label="Section-Header"><h2>복 음 록 상</h2></div> <div data-bbox="358 1133 627 1161" data-label="Text"><p>- 배영길(배드로) 신부 / 예수회</p></div> <div data-bbox="443 1177 571 1209" data-label="Section-Header"><h3>작지 않아</h3></div> <div data-bbox="107 1209 264 1433"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353 1244 705 1444" data-label="Text"> <p>작아 보여 아닐걸. 부족해 보여 아니라니까.</p> <p>그렇게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있다.</p> <p>그 마음만으로 충분한 사랑이 있다.</p> </div> <div data-bbox="89 1468 616 1528" data-label="Text"> <p>▶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p> </div> <div data-bbox="638 1468 705 1528" data-label="Image"></div>	<div data-bbox="728 1133 1059 1197" data-label="Section-Header"><h2>◆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lt;군장병의 편지&gt; 원고 모집</h2></div> <div data-bbox="728 1204 1059 152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 A4 빈쪽~한쪽</li> <li>-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li> <li>- 기한: 연중 상시 접수</li> <li>-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li> <li>- 선정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li> <li>-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li> </ul> </div>
--	---

### 성화이야기

### 지주받은 지들의 추락



디에릭 보우즈(Deric Bouts, c. 1420-1475) 1470년경 제작, 115×69.5cm 릴(Lille) 시립미술관, 프랑스

이 작품은 1468년 벨기에 루뱅(Louvain) 시청을 위해 의뢰된 <최후의 심판> 세 폭 제단화(트립티크)의 맨 오른쪽 패널이다. 현재 중앙 패널은 소실되었으나 그 모습은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Alte Pinakothek)에 소장된 모사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세로로 길쭉한 이 패널은 제목의 ‘추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 운동감이 지배적이다. 상단의 어슴푸레한 하늘에서부터 벌거벗은 인간(영혼)들의 무리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험준한 바위 절벽과 깊은 심연을 따라 아래로 내려쫓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 학자는 이들(죄인들이) “화산 지대의 풍경 속에서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지옥으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적었다.

하단에는 검붉은 불길과 음울한 연기가 타오르는 지옥이 펼쳐지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색조가 절망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추락하는 지주받은 영혼들은 모두 알몸인데, 이는 하느님 앞에서 숨거나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영혼들의 팔다리는 제멋대로 뒤틀리고 서로 뒤엉켜 혼란스러운 군상을 이룬다.

이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비명을 지르거나 헛되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몸짓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이 절망적인 추락의 한가운데에는 날개 달린 악마들과 기괴한 형상의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떨어지는 영혼들을 붙잡아 끌어내리거나 발톱과 손아귀로 움켜쥐어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며 가차 없이 괴롭히고 있다. 형체를 일그러뜨린 듯한 이 악마들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잔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람자에게도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적 교훈의 장치로 기능한다.

김은혜(엘리사벳)

<div data-bbox="1176 1252 1478 1332" data-label="Section-Header"><h2>교 구 소 식</h2></div> <div data-bbox="1176 1340 1601 150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구장 통장</b></li> <li>-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li> <li>  때·곳: 6월 21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li> <li>- <b>한국가톨릭의사협회 간담회</b></li> <li>  때·곳: 6월 27일(토), 군중교구청</li> </ul> </div>	<div data-bbox="1624 1300 2192 1332" data-label="Section-Header"><h2>군중위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2주일: 성지 장성호 신부</h2></div> <div data-bbox="1624 1340 2192 146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군중의 시간’ 인내</b></li> <li>  때: 주일 오후 3시 ~ 4시</li> <li>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li> <li>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li> </ul> </div>
--	--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본인생사의 해”